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원장 취임식 가져

지난 1월 2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원장으로 채석래 교수가 임명됐다.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장을 역임한 후 2년 만에 병원장으로 복귀했다.
또한, 채 원장은 동국대학교의대 부학장 및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전략경영실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4층 중강당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교원 및 각 부서장들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폐쇄성 폐 질환 걱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 폐 질환(COPD) 2차 걱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걱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차 평가는 2015년 5월부터 1년간 만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 폐 질환 환자가 방문한 전국 6,72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본원은 종합점수 동일종별평균 73.59보다 크게 높은 92.86점으로 폐 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환자 비율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만성폐쇄성 폐 질환 치료에 우수한 병원임을 인정받았다.
병원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 질 관리를 기본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해랑 스님 법서 150권 기부

월정사 중대 사자암 해랑 스님과 도서출판 모과나무는 환우 및 신도를 위한 불교도서 150권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300권을 전달한데 이어 두 번째 기부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원내 지도법사 증취 스님과 감원 해랑 스님, 모과나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가학교’, ‘천년의 성지 천년의 가피’, ‘다녀왔습니다’ 등 총 150권이 기증됐다.



2월부터 수면내시경 급여화 위·대장 동시 50% 인정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급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1~4단계의 산정행위로 금액은 단계별 4만 원~12만 원으로 구분했다.
또한, 위와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주된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제 2의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 급여기준 신설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고객의 소리

토닥토닥 위로와 다독임

어깨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고민하던 중, 전에 딸이 첫아이를 낳고 동국대일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쾌적한 병원 환경과 첨단 의료시설, 친절 함 등이 신뢰가 느껴져 진료를 받고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술을 앞두니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임무준 교수님과 김재현 전공의는 차분하고 상세하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후 김재현 전공의가 몇 번 더 찾아와 “믿고 맡기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며 제 등을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셨고 아들 같은 선생님의 위로와 다독임에 용기를 내어 수술을 받았고 결과 또한 좋았습니다. 수술 전 울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김재현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라고 떠올리며 고맙고 행복했습니다.